

November 2013

1. NIA News

조직 개편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빅데이터 센터 개소식

2. 원장 동정

일본 자민당 의원 방문
영국 맥스웰 CTO 회담
아프리카 3개국 연쇄 회담

3. 신입사원 인터뷰

4. IT 보고서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5. 포토 앨범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 현장 스케치

6. 11월 NIA 행사



디지털 통 (通)

for more information mail to : prd@nia.or.kr (김근혜 연구원)

Tel. 02-2131-0241 Fax. 02-2131-0109

조직 개편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와 조직개편 단행

우리 원은 9월 26일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에 맞추어 조직을 ‘1실 2본부 6단 2센터 2부설기관’ 체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정보화 싱크탱크 기능 대폭 강화 △창조경제·정부3.0 등 국정과제 지원체계 강화 △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주무부처 지원체계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기존 국가정보화기획단을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전자정부지원본부를 신설하여 전자정부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와 주무부처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 신설하여 정부 3.0 추진과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ICT융합서비스, u-공공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등 유사 사업을 신기술서비스단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ICT정책·기술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걸맞게 국가 정보화 추진 싱크탱크로서 NIA의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전자정부글로벌포럼, 성공리 개최

우리 원은 10월 22~23일 이틀간 일산 컨텍스에서 「2013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총 25개국 27명(장관 11명, 차관 16명)을 포함한 해외 인사 371명이 모여 전자정부의 미래와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의 국제기구, 학계, IT기업 등 총 1,359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정부 기반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주제로 각 국의 추진 전략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트랙과 국제기구 트랙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과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내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UN과 공동 개최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센터 개소식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공식 개소

우리 원은 10월 24일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온·오프라인 병행, www.kbig.kr)는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게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실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날 개소식 행사는 총 10개 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데이터 상호 협력 교류를 위한 MOU 체결과 다양한 학술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연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과 아주대의료원, SKT, 빅데이터 솔루션 포럼, DB전문가 포럼 등이 함께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통해 인력양성 및 산업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창출과 실무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영국 맥스웰 CTO와 회담

영국 정부 맥스웰 CTO, ITU 뚜레 사무총장 잇따라 내원

한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0월 16일 맥스웰 CTO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맥스웰 CTO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구축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추진 전략 및 성공 사례, 해외 확산 협력 등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공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맥스웰 CTO는 “표준프레임워크의 우수한 기술력 및 폭 넓은 활용성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를 영국 정부가 주의 깊게 검토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광수 원장은 최근 베트남, 멕시코 등과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영국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하마돈 뚜레 (Hamadoun Touré) 사무총장과의 개별 회담을 갖고 ITU 협력 프로젝트 추가 발굴, ITU 공동 개도국 대상 IT 봉사단 파견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 방문

일본 중진의원 및 고위관료 10여명 내원

일본 고위 관료들이 장광수 원장을 방문하고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중진의원 5명과 총무성 고위관료 1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방문은 한국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보임에 따라, 일본도 한국 전자정부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분발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본 방문단은 장광수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전개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 연쇄 회담

우간다, 탄자니아, 가봉 ICT 장관과 연쇄 회담

22일 장광수 원장은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에서 3개국 ICT 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탄자니아, 가봉 3개국 정보통신 관련 부처의 장·차관과의 만남에서 우리 정보화 모델의 해외 전파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3개국에서 관심을 보인 국가 정보화 및 브로드밴드 구축 경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을 적극 소개하고, 국내 ICT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장강민 공공서비스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공공서비스부 장강민입니다. 올 7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소개

저는 u-서비스 사업 중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새들이 나타나면 음파를 발사하여 쫓아내고, 반달곰이나 멧돼지가 농가로 침범하지 않도록 LED 불빛과 초음파를 발사하여 놀라 달아나게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기존 직원 분들 간에 끈끈한 정이 있고, 회사에 신입 직원을 다시 뽑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리버리한 신입직원들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밝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여름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온도계를 바라보니 30.6도에 습도는 73프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엔 좀 더 내려가겠죠?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멀리서도 딱 알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항상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구요. 아, 제 키는 187cm입니다 절대 190이 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ㅋㅋ 진짜 아닙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지키기 힘든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마음 속에 명심하겠습니다.



곽경표 정보화성과평가부

간단한 자기소개

운동하는 것과 책 욕심이 많은 대구 사나이 곽경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함께 하는 술 한 잔을 좋아하며 풍류를 즐기므로 즐겨찾기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 업무 소개

정보화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 통계집 발간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기반 정보화사업 성과분석을 맡으면서 NIPA, KEIT, ETRI의 전문가, 교수님과 협업하여 해당 사업의 재 정의와 향후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선배님들이 좋으십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1위인 요소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업무 시 분위기 또한 훈훈하기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부서 체험 기간에 제주도에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착수보고회를 당일치기로 다녀왔었는데, 우리원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입사원이 출장 간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때 출장을 허락해주신 부장님, 부서분들, 창의인재부에 감사의 말씀을 지면상으로 전합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유별나게 턱이 뾰족하고 턱선이 살아있는 하관입니다. 하관미남으로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요즘 일상의 소소한 행복 5가지를 써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흑인 억만장자 오프라 윈프리도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감사 일기'를 꼽았었는데요.

오늘부터 감사함을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장호영 글로벌기획부

간단한 자기소개

지치지 않는 긍정의 마인드를 항상 품고 사는 신입사원입니다.
또한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기동력 높은 신입사원입니다.

담당 업무 소개

현재 월드 프렌즈 IT봉사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NIA가 파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IT 해외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선진 IT기술을 전파함으로써 IT Korea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아직도 회사 ID 카드를 목에 걸고 집을 나서면 '내가 정말 취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사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처음 입사 후 회사 문을 들어올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입사 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위상에 대해 느꼈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노래, 춤을 통해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미와 성격을 통해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회사 업무를 하면서 또한 회사를 점점 알게 되면서 NIA입사를 했다는 자부심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즐거운 Happy NI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나 모바일서비스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1989년생 25살 이지나라고 합니다. 지리산 자락 시골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정보시스템학과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담당 업무 소개

현재 NIA 신기술서비스단 모바일서비스부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주말이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체 휴강을 할 수 있었던 대학교 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멀어져만 가는 금요일 밤을 목 놓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느 날 갑자기 스커트 뒷부분이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반진고리를 구해서 겨우 위기는 모면했지만, 진땀 흘렸던 사건입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씩씩함과 패기가 저의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2013년 올 해 여름은 우리 원이 달궈질 정도로 뜨겁게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역시 엄청 뜨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보린애 서비스기반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신기술서비스단 서비스기반부 황보린애 연구원입니다.
제 이름은 이웃 린(隣) 사랑 애(愛)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 입니다. 지면으로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D

담당 업무 소개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호환성 및 Active-X 실패 조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무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입사 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영국CTO가 우리원에 방문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리액션!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신입직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D



박지혜 미래전략연구부

간단한 자기소개

“평생 있을 것처럼 일하고, 내일 떠날 것처럼 준비하라.” 어떤 일이든 제가 맡은 바 온 힘을 다 쏟아내고, 한 곳에 정체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 업무 소개

IT 관련 이슈별 국내외사례를 조사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미래IT 분야를 선도할 주요 트렌드를 발굴하고, 그를 활용하여 IT&Future Strategy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한 조직의 일원이 되고나니, 업무 하나에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배우면서,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동기들과 함께 한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인원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10명에 가까운 인원이 기장의 인솔(?)하에 체험관광도 하고, 그간 실감하지 못했던 동기들의 참모습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저는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 있다는 점이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관련된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 열심히 찾아보고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든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사람이 미래”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NIA도 늘 사람을(국민을) 소중히 생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조직의 모습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예린 전문기술지원부

간단한 자기소개

올해 27살이고 대학원 갓 졸업하고 들어온 뽕송뽕송한 신입으로 현재 과천에 거주 중입니다. 대학시절에는 Communication Studies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정보미디어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아직 IT와 컨설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여쭙보고 귀찮게 해드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에 계신 모든 분들 얼굴 익힐 때까지 먼저 방긋 웃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 소개

저는 국가정보화사업 감리체계실태조사와 적용방안 연구 그리고 수발주 지원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업총괄님과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가 높은 수준이고 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위해 교육파견,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신입사원 부서체험프로그램 중에 전문기술지원부(구 정보화컨설팅부)에서 주최했던 식약처와 미래부의 MOU의 의전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행사들이 이렇게 세심하고 다양한 손길이 필요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경험이 인연이 되어 결국 전문기술지원부에 최종 배정받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밝은 웃음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힘써주세요! :)



김재민 정보접근지원부

간단한 자기소개

대학원 연구실에서 많은 공공사업들에 참여하면서, 국가 정보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NIA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과 여러 활동을 한 결과 꿈에 그리던 NIA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리고 IT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 업무 소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관련 연구와 정보통신 표준 및 인증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을 준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위한 연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국가정보화를 위해 NIA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IA 일원으로서 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입사 후, 부장님께서 고등어회를 사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 맛보았기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듯 했습니다. 입안, 그리고 혀 위에서 고등어가 퍼덕 거리며 뛰노는 것 같았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고등어는 그날 하루치만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먹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어떤 환경에서 무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은 저보고 바퀴벌레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뛰어난 적응력을 NIA에서 발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국가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의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연구 과제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국가의 IT 중심기관으로 더욱 더 거듭날 수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고등어회 한 번 더 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은경 기획조정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기획조정부 도은경입니다. 7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여 이제 5개월차의 신입사원입니다.

담당 업무 소개

제가 맡은 업무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NIA3.0입니다. 우리 원 운영 홈페이지를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NIA 3.0이라는 원 내 전략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실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전 회사를 통틀어 제가 제일 막내에 속합니다. 먼저 입사하신 선배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때로는 충고도 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동료들 간에 정이 있는 따뜻한 회사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지난 한 달 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말로만 들었던 지하 체력 단련실 샤워실에서 씻으려고 가는데 조용하고 컴컴하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면서 남자 샤워실에서 나는 물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국감 때 계셨던 남자 분들은 그 당시 씻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공포감이란...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덧니가 보이게 커다랗게 웃는 웃음과 웃음소리입니다. 좋음에 대한 표현이 확실한 성격 때문인지 부서원들의 재미있는 말에 큰 웃음을 터뜨리곤 해요. 제 웃음소리가 웃겨서 부서원들이 웃으시는 일들도 있었답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원 외부에서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기관, 원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협업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 능력 있는 기관, '외유내강'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둘이 공공서비스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공공서비스부 신입직원 박둘이입니다. 저는 저희 집 둘째 딸이라서 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언니 이름은 한나이고, 동생은 세리입니다.

담당 업무 소개

저는 스마트워크 운영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체험근무 추진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통계 관리, '14년 출장형 센터 위탁 운영 계획 수립을 맡았으며, 수시로 공공서비스부 전자정부 동향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NIA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고 직원 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젠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모니터를 함께 써서 정말 근무하기 편합니다. 이제는 모니터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니터가 좋네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10월 18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을 지원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안행부 장관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라 준비할 내용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집이 멀지만 통근을 한다는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 20분에 걸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왕복 3시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Always Happy Nia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파이팅!



이서연 공공데이터활용지원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밝고 씩씩하게 회사원 3개월차 적응중인 이서연입니다.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식은땀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그 날을 기대하며 올 겨울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담당 업무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중계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을 원하는 분들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저는 담당기관으로 연결하여 이용자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을 원하시는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아..고수다!’ 대한민국 정보화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일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사하고 직접 옆에서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 만들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들 고수라고 느꼈고 저 또한 앞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제주도로 당일 출장 다녀온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실무 담당자 교육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당일 지방 출장이라는 점에서 신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던 제주도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주도 바다는 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음..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은 암전함 뒤에 어딘지 엉뚱한 면이 있다고들...말씀해 주시고는 합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모두가 즐거운 NIA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 !!



김근혜 홍보부

간단한 자기소개

흥이 많아 어디에서나 활력소 역할을 하는 25살 김근혜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 야구를 좋아하고, 해운대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동안 제 버킷리스트는 요리와 사진, 인포그래픽을 배우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 소개

홍보부에서 매일 우리 원의 보도 자료와 광고를 내보내는 Gate Keeper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원내 행사 사진 촬영부터 뉴스레터나 홍보물 제작까지 홍보 전반에 관련된 일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신속 정확’의 중요성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빨리 일이 손에 익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대치는 높는데,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하여 매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가끔 일이 고되어 지옥에 있다가도 ‘고맙다’, ‘열심히 해서 보기 좋다’라는 말 한 마디에 녹아내리는 신입입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멘토님께서 1주일에 한 번씩 노하우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생활 전반부터 글 쓰는 방법이나 인간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노하우 메일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몇 번씩 꼭꼭 곱씹어 봤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축제를 너무 사랑합니다! 각종 락 페스티벌이나 영화 축제, 소소한 지역 장터나 프리마켓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회사 앞 청계천이나 광화문에서 축제가 많아 행복합니다.

NIA에 바라는 한 마디

NIA에 들어와서 보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다들 사명감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NIA에서 하는 일들이 원내외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수 융합서비스부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 융합서비스부에 안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해서 어느덧 3개월이 지났네요. 현재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신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소개

현재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비타민 프로젝트 지원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향 작성 및 사업 과제 발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면접 스테디를 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러 자료를 통해 파악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문, 사회, 공학 등 자신의 전공 분야를 심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현재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여러 분야(농업, 의료, 에너지 등)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최근 동향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군 시절 같고 닦아왔던 문서작업(한글, 파워포인트) 스킬과 학부 시절동안 공부했었던 공학적 지식 및 컴퓨터 보수(?) 능력이 저만의 유니크 포인트가 아닐까요?

NIA에 바라는 한 마디

국가정보화를 위해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일손이 더 필요한 것



이은종 창의인재부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창의인재부에서 근무하는 이은종입니다. 부천에서 살고있는 서른두살 총각이구요. 입사전 여러 일을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일은 20대 중반 한국대표로 길드워 세계대회(미국, 대만, 독일)에 참가하여 수상한 일입니다.



세계대회우승(대만)

담당 업무 소개

저는 NIA의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기록물의 정리·이관·평가·폐기·활용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현재는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문서고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물은 폐기하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선별하여 보존·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모아 시스템상의 분류체계(대·중·소·단위업무·기록물철) 정비를 통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사 이후 느낀 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평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입사 2달 후, 기획조정부의 박승범 수석님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

자신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취미가 요리입니다. 올해 추석 부서에 배포한 간장새우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NIA에 바라는 한 마디

2014년에는 더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파이팅!

가트너, 2014년 10대 전략기술 발표

가트너는 향후 3년간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10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전략 기술이란 IT나 비즈니스에 창조적 파괴를 가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로, 대규모로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채택이 늦을수록 기업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www.gartner.com/newsroom/id/2603623>



모바일 기기 다양화 및 관리

2018년에는 디바이스, 컴퓨팅 스타일, 이용자 상황, 상호작용 양식 등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BYOD 도입으로 인한 모바일 인력 급증과 이로 인한 IT 및 재무 조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직원 소유 하드웨어 사용에 대한 기업 정책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



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

2014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개선으로 HTML5와 브라우저가 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

가트너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풍부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 개발에 집중할 것을 권고



만물 인터넷

인터넷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넘어 현장 설비 등의 기업 자산 및 자동차, TV 같은 소비자 상품으로도
확대 중이나, 대부분의 기업과 기술 업체들은 여전히 확장된 인터넷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하는 상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IT

개인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으로, 기업들은 향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을 고려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컴퓨팅 방식/구조가 클라우드/클라이언트로 변화되어, 클라우드가 기록 시스템이면서 제어 포인트가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다양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고 있음



퍼스널 클라우드 시대

기기에서 서비스로의 힘의 전환을 의미하는 개인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하나의 기기 대신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될 것이며 퍼스널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할 전망



소프트웨어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후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기 환경 관리 및 제어를 의미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SDN),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DDC),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SDS),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SDI) 등의 기술 업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리더십 강화 중



웹스케일 IT

웹스케일 IT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각종 역량이 결집된
운영 방식으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IT 환경 내에서 글로벌 수준의 컴퓨팅 역량 구현이 요구될 전망



스마트 머신

2020년까지 상황인식 지능형 개인 비서, 인공 지능인 IBM '왓슨(Watson)' 같은 스마트 자문가(ad-
visor), 글로벌 산업 시스템 진화, 무인 자동차 등의 확산으로 스마트 머신의 시대가 개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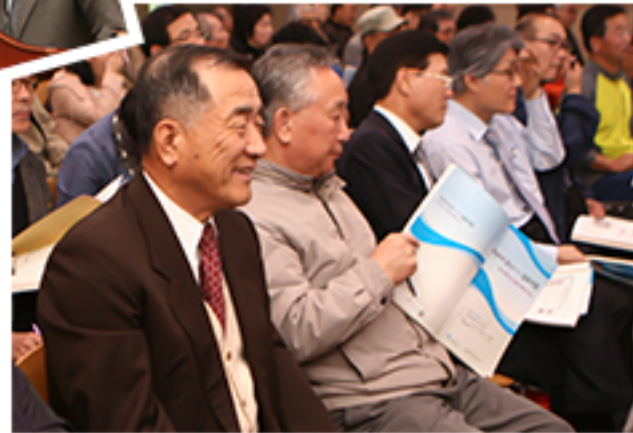


3D 프린팅

2014년 전 세계 3D 프린터 출하량은 전년 대비 75%, 2015년에는 출하량이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 개발 및 생산 역량 구축으로 500~5만 달러 정도의 보급형 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자신감과 함께 힘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IT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 복지 증진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끌어내는 '디지털 에이징'이 바로 그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디지털 에이징 심포지엄이 10월 29일 NIA에서 열렸는데요. 실버넷 등 장노년층 단체의 참여와 재능기부로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사진촬영과 영상 제작 등으로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세미나를 경청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디지털 에이징 성공 사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에이징과 함께 활력 넘치는 창조 한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November 201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대학생프로그래밍경진대회	2
3	4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센터 개소식	5	6 - 지식 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식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바른 인터넷 동요 대회	19 - 경남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 개소식	20 - 대구 신사옥청사 착공식	21 - 국가영상정보자원효율화 컨퍼런스	22	23
24	25 - 정보문화상 시상식	26	27	28	29	30

